



#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보도자료

<http://www.gist.ac.kr>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홍보팀 김효정 팀장

062-715-2061 / 010-3644-0356

담당

홍보팀 이나영 선임행정원

062-715-2062 / 010-2008-2809

자료 문의

홍보팀 박세미 담당

062-715-2960

## 지스트, '비아 첨단마을 옛 이야기' 출간

- 첨단단지에 편입된 마을의 역사 문화·생활상에 대한 생생한 기술 통해 원주민 기억 속의 향수 일깨워 지역사회와 소통 기대

- 광주광역시 비아 일대 옛 마을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향수를 일깨우고,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을 북돋우기 위한 책이 나왔다.
-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기선, 이하 지스트) GIST PRESS가 광주 첨단과학단지 에 편입된 광산구 비아 일대 옛 마을의 과거 생활상을 기술한 ‘비아 첨단마을 옛 이야기’ (저자 박준수, 광주매일신문 주필)를 출간했다.
  -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 비아땅 이야기에서는 비아의 지명 유래와 까마귀 서식지, 근대 시대 제도 변화를 ▲제2부 근대화의 시발점에서는 비아오일장을 비롯 비아초등학교·무양중학교의 설립과정, 비아극장 실체를 옛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조명했다. 이어 ▲제3부 첨단단지 조성과정에서는 편입된 마을들의 모습과 이주민들의 대응 움직임을 살폈으며 ▲제4부에서는 무, 배, 막걸리, 옹기 등 비아의 특산물과 역사 유산을 기술했다. 마지막 ▲제5부에서는 원주민들의 고향 회상과 현재의 마을 공동체 문화를 수록했다.
- 지스트가 자리한 비아 일대는 1993년 첨단단지가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선사시대 이래 유구한 농경문화를 간직해왔다. 지리적으로는 영산강 유역에 인접하면서 광주의 길목에 위치해 타 지역과 교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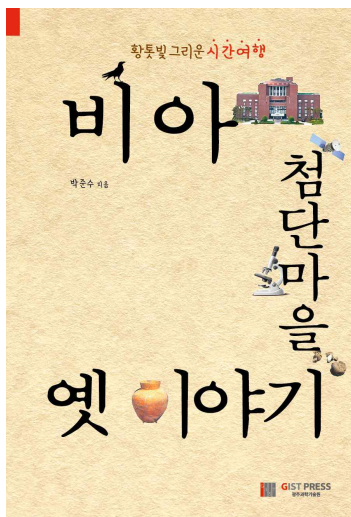
빈번한 까닭에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형성해 온 곳이다.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국도 1호선이 통과하고 이를 계기로 일본인들이 이주해 과수원 지대를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이러한 입지적 특성으로 1990년대 정부의 첨단과학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이곳에 첨단단지가 들어섬으로써 광주의 생산도시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개발로 인해 마을의 풍광은 사라지고 원래 지역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전혀 낯선 신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곳에 깃들었던 마을의 역사와 생활 풍습이 불가피하게 해체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 지스트 김기선 총장은 “이 책이 첨단마을의 옛 주민들에게는 정겨운 고향의 흠냄새를 일깨워 주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공간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함으로써 문화적 연대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며, “또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데 가교(架橋)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비아 첨단마을 옛 이야기’ 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지역 내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 [사진 설명]



▲ 책 표지 / 저자 박준수(광주매일신문 주필)